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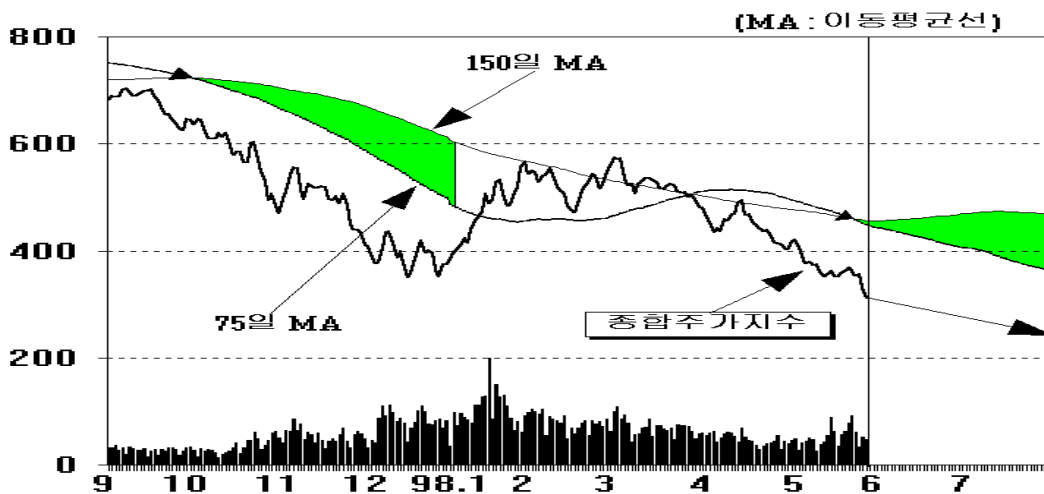
- (주식시장) 엔화 폭락, 노동계 파업 등이 금융기관 및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둔화 등 시장내 수급 악화와 맞물리면서 폭락 자세로 이어지고 있음
- (외환·금융시장) 환율 및 지표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내의 충분한 자금 공급에도 불구하고, 81조 원(3월 말 현재)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자금경색 현상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음

□ 주식 시장

- **(주가 폭락)** 인도네시아 사태 여파에 뒤이은 엔화가치 폭락 사태, 노조 파업 가능성, 그리고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기업의 부도 도미노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고 있음
 - 27일 종합주가지수는 11년만의 최저 수준인 311.99를 기록하여 300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시가총액도 97년 11월 21일 94.9조 원에서 5월 26일 현재 62.1조 원으로 감소
- **(주변 여건 악화)** 엔화 가치 하락, 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거부 및 노동계 파업 등이 악재로 작용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 환율이 7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37엔으로 상승하였으며, 연말에는 150엔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엔화가치 하락의 계기는 루빈 장관의 150엔 대 허용 발언이었지만, 기본 원인은 일본의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미·일간 실물 경제에서의 경제력 차이에 있음
 - 한국은행은 엔화가치가 5% 절하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당장 1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주식 매도세 급증)** 구조조정을 앞둔 금융기관들이 유동성확보를 위해 외국인한도 폐지에 맞추어 보유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내다 팔고 있고, 그 동안 주가를 일부 지탱해오던 개인투자자들도 투매에 나서고 있음

- 금융기관들은 올 들어 24일까지 3.1조 원어치의 주식을 처분. 투신사의 경우 보유주식 규모를 97년말 10.7조 원에서 5월 21일 현재 9.3조 원규모로 축소했으며 증권사도 97년말 3조 원 규모에서 3월말 현재 1.9조 원 수준으로 축소했음
 - 민노총의 파업 선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도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
- (전망)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데드크로스는 75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을 경우 발생함. 이 경우 최소한 2개월 가량 하락세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
 - 엔화가치 하락 및 노사관계 악화 등 주변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환차익도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도 부진할 것이며, 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더 많은 매물을 쏟아낼 것이므로 증시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최근 종합주가지수 추이 및 데드크로스 발생 상황 >



□ 외환 · 금융시장

- (환율, 금리 안정) 주가 폭락, 엔화 가치 하락, 노동계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아직 1,400원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공급 우위의 수급

- 사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월말 수출네고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택공사 상업차관 3억 달러 유입 및 기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월말에 예정되어 있음. 또한 거주자 외화예금은 계속 증가하여 5월 25일 현재 최고수준인 97.2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월말 이후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또, 엔/달러 환율이 150 엔대까지 상승할 경우 원화 환율도 1,6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금리는 콜금리 17%대, 회사채수익률 18%, CP 19%대를 유지하고 있음
- **(자금경색 현상 심화)**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최악의 신용 경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은행권 대출이 대폭 축소됨. 5월 20일까지의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8%에 불과한 1,732억 원에 머물렀고, 5월말까지도 3,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은행신용은 5월 20일 현재 1.4조 원에 달해 지난 4월의 1.2조 원을 초과함. 이는 은행들이 한은의 RP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임
- **(자금 공급은 충분한 상태)** 5월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은 본원통화 18조 원, 한은의 RP와 통안증권 45.5조 원 등 총 63조 원에 달함(97년 4/4분기: 본원통화 22.5조, RP 및 통안증권 잔액 28.5조)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28조 원 가량의 통화가 한국은행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임
 - 종금사 정상화 자금 1조, 제일은행 정상화 자금 1조, 97년 11월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과 투신의 국공채 2조 매입, 종금사 영업정지 때 콜자금 7.5조,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2조, 예금대지급 및 제일·서울은행 출자 6.5조,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지원 2조, 중소기업 총액대출 한도 증액 2조 등
- **(부실채권 규모 81조)**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부실여신+부실유가증권)은 지난 3월말 현재 총 8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음(금감위)
- 97년 말 69.4조 원에서 3개월만에 11.8조 원이 늘었는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인 요주의여신 55.4조 원까지 합칠 경우에는 136.6조 원에 이릅니다
 - 은행권 48.2조 원, 부실여신 38.9조 원, 부실유가증권 9.3조 원

- 제2금융권 33조 원 종금사 4.1조 원 증권사 2.9조 원 생명·손해·보증보험회사 10.8조 원 투자신탁 2.7조 원 리스 8.6조 원 신용금고 4.0조 원
(부실유가증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과 부도·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채권, 주식평가손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투신사 신탁계정의 주식평가손은 제외됨)

□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 1,400원대로 상승

노동계의 총파업과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환율의 급등세에 따라 원화환율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며 다시 달러당 1,400원대로 상승함. 그러나 일본은행의 개입 움직임에 따라 엔화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월말 수출내고 자금 유입으로 시중 외환 사정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환율 상승세는 소폭에 그침. 5월 30일 현재 1410.80원 기록

- 주가 : 상승세 반전

민노총 총파업, 엔화 약세, 파키스탄 핵실험 등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로 한때 11년 3개월만의 최저치인 310선까지 하락함. 그러나 단기급락에 따른 반등세에다 기업과 은행권의 외자유치, 건설경기 부양책,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 5월 29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336.63포인트 기록

- 금리 : 시장 여건 불안속에 상대적 안정세 유지

엔화환율 급등에 따른 원화환율 불안, 노동계 총파업,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금융 시장 동요 등 대내외 시장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리 인하 의지와 초우량물 위주의 채권 거래에 따라 회사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세 유지.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채권은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금리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5월 29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7.82% 기록

- 엔/달러 환율 : 급등세속에 140엔대 육박

지난 25일 루빈 美 재무장관의 “엔화환율 달러당 150엔 가능 전망” 발언 이후 엔화의 약세 기조가 가속화됨. 뒤이어 파키스탄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남아시아의 정세 불안, 4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본 국내 경기지표의 악화 등에 따라 엔화환율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달러당 140엔대에 육박. 일본은행

이 개입할 경우, 엔화는 당분간 안정을 되찾을 것이지만 전반적인 엔화 약세기조가 반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5월 28일 현재 138.73엔 기록

< 國內 經濟 指標 >

		97년	98.1월	2월	3월	4월	5월 29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후세	원 인	
실 물 지 표	무역 수지 (동관기준, 억불)	-84.5	14.5	47.2	84.0	123.4	-	256	흑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6.2	30.6	69.9	106.9	144.3	-	280	흑자 지속	상품서비스 수지 흑자	
	물 가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비, %)	6.6	8.3	9.5	9.0	8.8	-	9.2	급등 후세 완화	환율 안정 국제 원자재가 하락
		생산자물가 (전년 동기비, %)	10.9	15.2	17.7	17.5	17.5	-	16.2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3.1	4.1	4.7	5.3	6.1	-	6.0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 융 지 표	환 율	₩/\$	1,415.2	1,688.8	1,640.1	1,387.0	1,338.2	1,410.8 (30일)	1,400	상승	엔화 환율 급등
		¥/\$	130.57	126.95	126.08	131.90	132.38	138.73	134	상승	일본 경기 악화, 파키스탄 사태
	금 리 (%)	RP 금리	35.0	29.0	24.2	24.0	19.14	17.70	-	보합	엔화환율 급등, 노동계 불안, 구 구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회사채수익률	28.98	18.50	20.50	18.28	17.70	17.82	17.5		
		CP 수익률	35.00	21.00	24.50	22.20	19.00	18.50	-		
		당좌대출금리	35.01	28.15	25.98	24.58	23.68	-	-		
		종합주가지수	376.31	567.38	558.95	481.04	421.2	336.63	550	하락	외국인 매도세 증가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35.2 (123.6)	267.2 (185.4)	297.5 (241.5)	355.4 (307.6)	359.1 (314.8)	510 (400)	증가	경상수지 흑자, 외평채 발행	

주: 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2) 무역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3) 5월 외환보유고는 15일 기준이며,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cheon@hri.co.kr ☎724-4011)